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¹⁾

- 어머니의 역할만족,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능력을 중심으로 -

Effects of the Empowering Parents Training Program on
Mothers and Their Children

Emphasizing on Mothers' Parental Satisfaction, Communication Skills,
Children's Self-esteem and Social Competence

김 향 은*

Kim, Hyang Eun

정 옥 분**

Chung, Ock Bo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Empowering Parents Training(EPT) program with emphasis on mother's parental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and children's self-esteem and social competence. Subjects were 73 mothers and their 4th to 6th grade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Kyonggi-do. Thirty-seven mother-child dyads were assigned to the education group and 36 dyads were assigned to the comparison group. Mothers in the education group received EPT in 7 sessions.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data analyses were ANCOVA and Scheffe test. EPT had a positive effect on enhancing mothers' parental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EPT had some positive influence on children's self-esteem and social competence. The executive model of EPT used in this study was considered effective by the parents and lecturers.

1) 본 논문은 1999년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강사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I. 서론

건강한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 같은 맥락에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수많은 도전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면서 사회적 지원 체계로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Hamner & Turner, 1996).

우리 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로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PET나 STEP과 같이 외국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다 1990년대에 와서는 외국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수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등장하였고 국내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둘씩 선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부모교육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크게 증대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 외국의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고, 우리 나라 부모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일도 필요한 일이지만, 국내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 프로그램의 보완과 확산을 도모하는 일 역시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문화관광부 산하의 한국청소년상담원(1993)이 개발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EPT: Empowering Parents Training)"는 국내의 대표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기법 중심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자녀지도의 방법적 원리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김혜숙, 1997; 홍은희, 1998).

그러나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검토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보완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 아래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의 효과를 어머니와 자녀의 변화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우선 어머니에게서 나타나는 부모교육의 효과로 부모역할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성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Guidubaldi & Cleminshaw, 1989)인 동시에,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Furstenberg & Harris, 1992)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데 아직까지는 부모역할만족에 관한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고, 더구나 부모교육이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극히 드문 형편이다.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PET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부모역할만족도의 변화를 살펴 본 선행연구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연미희, 1992; 1994).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국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른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킬 때 그 효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사안은 뒤늦게 국내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 곧 우리 나라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에게서 나타나는 부모교육의 효과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또 하나의 변인은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구체적인 지표로 강조되어 왔는데, 실제로 많은 어머니들이 부모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길 원하며(김지신, 1994),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또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부모교육의 효과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의 상당수는 외국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어머니를 통한 측정에 기초하고 있다. 자녀들의 평가를 통해서도 어머니의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이 나타난다면 부모교육의 효과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자녀의 지각을 통한 어머니의 의사소통 기술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EPT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을 중심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부모교육의 효과로 아동기의 발달과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아동기는 자아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이므로(Mussen et al., 1990), 긍정적인 훈육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돕는 것이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가 힘써야 할 주된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김광웅과 최경순, 1997).

현존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부모

들로 하여금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며, 자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자녀들의 건전한 자아개념의 발달에 유익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모교육의 효과를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관련지어 살펴 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어머니의 자녀에게서 기대되는 부모교육의 효과를 자녀의 자아존중감 증진의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아동기는 자아성장의 민감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의 민감기이기도 하다(유가효, 1997). 이 시기는 지금까지의 가족중심적인 대인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인간관계를 맺어 가는 시기로, 이 때의 성공적인 관계맺음은 이후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성공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과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들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특별히 사회성 발달을 돕는 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교육의 효과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측면을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적 차원에서 부모자녀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부모교육의 일차적 목적을 넘어, 부모교육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도 확산적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보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5개 초등학교의 4~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와 자녀로, 부모교육을 받은 어머니와 자녀 37쌍과 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어머니와 자녀 36쌍이다. 이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을 살펴

2. 측정 도구

1) 부모역할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는 현은강(1994)이 개발한 부모역할만족도 척도(Parent Satisfaction Scale)를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배경

					N(%)
변 인		구 분	교육집단:37	비교집단:36	계:73
	연 령	31~35세	6(16.2)	7(19.4)	13(17.8)
		36~40세	26(70.3)	24(66.7)	50(68.5)
		41~45세	5(13.5)	5(13.9)	10(13.7)
어	교육 수준	중 졸		1(2.8)	1(1.4)
		고 졸	15(40.5)	15(41.7)	30(41.1)
		전문대졸	11(29.7)	9(25.0)	20(27.4)
		대졸이상	11(29.7)	11(30.6)	22(30.1)
머	월평균 수입	100 만원 미만		1(2.8)	1(1.4)
		100~149 만원	4(10.8)	8(22.2)	12(16.4)
		150~199 만원	12(32.4)	12(33.3)	24(32.9)
		200~249 만원	13(35.1)	7(19.4)	20(27.4)
		250~299 만원	3(8.1)	4(11.1)	7(9.6)
		300 만원 이상	5(13.5)	4(11.1)	9(12.3)
니	자 녀 수	1 명	1(2.7)	3(8.3)	4(5.5)
		2 명	35(94.4)	31(86.1)	66(90.4)
		3 명	1(2.7)	2(5.6)	3(4.2)
	부모교육 경험	유	16(43.2)	21(58.3)	37(50.7)
		무	21(56.6)	15(41.7)	36(49.3)
자	성	남	21(56.8)	15(41.7)	36(49.3)
		여	16(43.2)	21(58.3)	37(50.7)
		학 년	4학년	12(32.4)	20(55.6)
녀	연 령	5학년	20(54.1)	13(36.1)	33(45.2)
		6학년	5(13.5)	3(8.3)	8(11.0)
		9 세	6(16.2)	13(36.1)	19(26.0)
		10 세	19(51.4)	15(41.7)	34(46.6)
		11 세	11(29.7)	7(19.4)	18(24.7)
		12 세	1(2.7)	1(2.8)	2(2.8)

통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 척도 - 일반적인 만족도, 부모자녀관계, 부모역할갈등, 배우자의 지지, 자녀의 지지 - 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48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94로 나타났다.

2) 의사소통 기술

어머니의 의사소통 기술은 Barns와 Olson(1982)의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자녀용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4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SEI(Self-Esteem Inventory)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 척도 - 총체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사회에서의 자아존중감 - 로 구성되어 있다. 총 32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91로 나타났다.

4) 사회적 능력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황옥경(1997)이 제작한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 대한 반응을 사회적·주장적, 회피적·수동적, 적대적·지배적 해결방안으로 구분하여, 각각 2, 1, 0점으로 점수화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 척도

의 신뢰도(Cronbach α)는 .70이었다.

5) 부모교육 평가

이 척도는 연구자가 제작한 2개의 개방형 질문과 9개의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형 질문에는 부모교육을 받은 후의 소감과 부모교육으로 인한 본인과 자녀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폐쇄형 질문에는 자녀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다른 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은 의향, 후속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사, 그리고 교재, 일정, 장소, 집단규모, 운영방식, 진행자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4. 연구 절차

서울(노원구, 동작구, 송파구)과 경기도(성남시, 인천시)에 위치한 5개 초등학교의 협조를 얻어 1999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3~5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참가자를 모집하는 가정통신문을 배포하였다. 회수된 가정통신문을 통해 1차 시기(3~4월)를 희망하는 어머니와 2차 시기(6~7월)를 희망하는 어머니를 각각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교육집단 어머니들에게는 주 1회 3시간씩 모두 7회에 걸쳐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의 총론편과 대화편을 실시하였으며, 부모교육이 시작되는 날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어머니와 자녀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모교육이 끝나는 날 동일한 방식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교육집단의 경우에는 총 7회의 교육 회기 중 6회 이상 참석한 어머니들(72%)만을 최종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강사는 한국청소년

상담원에서 양성한 부모교육 교수요원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본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학 강사 1인과 초등학교 교감 1인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여성이었다.

5. 자료 처리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자녀 수, 월평균 수입, 부모교육 경험 유무와 자녀의 성, 연령, 학년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 α 계수를 구하였다.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의사소통 능력,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에 대한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비교와, 교육집단을 대상으로 한 관련 변인별 비교는 공변량분석(ANCOVA)과 Scheffé 중다비교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한편 부모교육에 대한 평가 문항 중 폐쇄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머니들의 응답 내용을 범주화한 후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의 빈도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머니의 변화

1) 부모역할만족도

어머니들이 느끼는 부모역할만족도는 교육집단과 비교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교육집단이 지각하는 역할 만족도가 비교집단이 지각하는 역할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의 비교

집단	N	사전 검사		사후 검사		F
		M	SD	M	SD	
교육	37	3.81	0.53	4.15	0.39	10.44***
비교	36	4.05	0.39	3.95	0.47	

*** $p < .001$

부모역할 만족도를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사전-사후간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적인 만족도($F=19.67, p < .01$), 부모자녀관계($F=$

$10.45, p < .001$), 부모역할갈등($F=5.46, p < .05$)의 영역에서 교육집단 어머니들이 비교집단 어머니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한편 교육집단만을 대상으로 몇 가지 배경적 특성별로 부모역할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부모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전문대졸이나 대학중퇴의 어머니들이 고졸의 어머니들 보다, 딸을 둔 어머니들이 아들을 둔 어머니들 보다 유의하게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부모역할만족도를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관련요인별로 사전-사후간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일부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부모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어느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만족도의 경우에는 딸을 둔 어머니

가 아들을 둔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만족을 나타냈으며,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자녀간 갈등의 경우에는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의 어머니가 고졸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부모자녀관계의 만족과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부모자녀간 갈등을 나타냈다. 배우자의 지지는 전문대졸이나 대학중퇴인 어머니가 고졸이나 대졸이상의 어머니보다, 딸을 둔 어머니가 아들을 둔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자녀의 지지는 딸을 둔 어머니가 아들을 둔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2) 의사소통 기술

교육집단과 비교집단 어머니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비교해 본 결과 교육집단 어머니의 의사소통 기술이 비교집단 어머니의 의사소통 기술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의 비교

집 단	N	사전 검사		사후 검사		F
		M	SD	M	SD	
교육집단	37	3.88	0.59	4.21	0.53	5.35*
비교집단	36	4.07	0.46	3.80	0.52	

*p<.05

한편 교육집단만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배경적 특성별로 의사소통 기술을 비교해 본 결과, 부모교육에 참가한 어머니들의 의사소통 기술은 어머니의 학력과 부모교육 경험 유무, 그리고 자녀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자녀의 변화

1) 자아존중감

EPT 프로그램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의 자아존중감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참조).

〈표 4〉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의 비교

집 단	N	사전 검사		사후 검사		F
		M	SD	M	SD	
교육집단	37	3.70	0.63	3.99	0.59	1.53
비교집단	36	3.86	0.41	3.76	0.48	

한편 두 집단간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 가정적 자아의 영역에서만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F=4.25, p<.05), 교육집단의 자녀가 지각하는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비교집단의 자녀가 지각하는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집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관련변인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비교해 본 결과 어머니의 학력과 부모교육 경험 유무, 그리고 자녀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을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2) 사회적 능력

EPT 프로그램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집단과 비교집단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사회적 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의 비교

집 단	N	사전 검사		사후 검사		F
		M	SD	M	SD	
교육집단	36*	17.59	3.87	19.06	4.01	0.56
비교집단	36	18.94	2.47	18.85	2.53	

* missing data로 인해 빈도가 달라짐

한편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한 세 가지 대응양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원별로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빈도를 비교해 본 결과, 사회적·주장적 대응에서 교육집단 자녀가 비교집단 자녀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F=9.42, p<.01$), 회피적·수동적 대응이나 적대적·지배적 대응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교육집단 자녀만을 대상으로 관련변인에 따라 사회적 능력을 비교해 본 결과 어머니의 부모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어머니의 자녀가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어머니의 자녀보다 유의하게 높은 사회적 능력을 보였다. 사회적 대응의 유형별로 관련요인에 따른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어머니의 학력, 부모교육 경험, 자녀의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부모교육 참가자의 평가

1) 어머니의 평가

이 프로그램이 자녀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은 질문에 대해 절대다수(97%)의 어머니들이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참가자 전원이 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으며, 후속 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 다시 참여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본 교육에 사용된 교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72%)가 매우 만족한다거나 약간 만족한다고 대답하였으나, 본문에 제시된 예문을 좀더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1명)도 있었다.

교육 일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3(67%)가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일정에 관한 개선사항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부모교육을 건의하는 경우(1명)도 있었다.

교육장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9%)이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조용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장소가 협소하다”라는 식의 열악한 시설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루었다.

집단의 규모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의 대부분(89%)이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대답하였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역시 대다수(89%)의 어머니들이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답하였는데, 집단운영과 관련된 불만사항으로 토론시간이 부족하다는 견해(1명)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자에 대해서는 83%의 어머니들이 매우 만족했으며, 17%의 어머니들이 약간 만족한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부모교육을 받고 난 후 어머니들의 소감과 어머니가 느끼는 본인 및 자녀의 변화에 대해 물어본 결과, 어머니들은 이 프로그램이 자녀를 이해와 지도에 도움이 되었고, 뭔가를 새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었으며,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이 좋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표 6 참조).

한편 어머니들이 지각한 자신의 변화는 감정

〈표 6〉 부모교육을 받고 난 후의 소감

응답 범주	응답 내용
자녀이해와 지도에 도움	“자녀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자녀를 교육하면서 어떠한 문제에 봉착할 때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옳은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방향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아이들을 지도함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학습 경험 자체에 만족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교육받고 배운다는 기쁨과 새로움에 대한 기대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끝남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모교육 운영방식에 만족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대화형식이라 더 좋았습니다.” “그 동안 여러 번 교육을 받았지만 이런 형식은 처음이었다. 듣기보다는 나의 경험이나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피부에 와 닿았다.”

〈표 7〉 어머니의 변화

응답 범주	응답 내용
자기감정의 통제	“아이에게 관대해지며 너그러워졌다.” “화가 날 때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감정조절).” “아이들이 잘못하면 화를 먼저 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먼저 내 마음을 추스리고 대화먼저 시작하게 되었다.”
자신감과 실천력	“아이들 키우는 문제들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책이나 교양강좌나 경험을 통해 자녀를 다루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많았지만 잘 안되었다. 이 교육을 통해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아이에 대해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자녀존중과 이해	“엄마 입장에서 어른이라고 훈계식으로 하던 것을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아이의 입장에 서서 좀더 이해하려는 노력과 무조건적으로 존중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애정과 관심을 한층 더 갖게 됩니다.”
의사소통의 개선	“아이에게 상처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이와의 대화가 명령식보다는 대화식, 전달식으로 많이 변화했다.” “말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성찰과 반성	“부모로서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어 지난날의 자녀교육에 대한 태도가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제, 자녀에 대한 존중과 이해,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각 범주에 해당되는 어머니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자녀들의 변화로는, 자녀의 성격이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는 것,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선되었다는 것, 부모자녀관계가 좋아졌다는 것, 어머니가 부모교육을 받는 것을 아이가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자녀관계 외의 다른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자녀의 변화

응답 범주	응답 내용
긍정적 정서의 증진	“조급함이나 짜증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마음을 다치지 않으니 활발하고 명랑해졌다”. “아이들의 표정이 더 밝아졌다. 믿음이 더 생긴 것 같았다”. “자신감이 없던 아이가 좀 더 용기있고 자기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 같다”.
의사소통의 개선	“엄마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행동에 따라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대화의 문을 연다”. “나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대화하는 동안에는 이해하는 듯이 대답을 한다”.
부모자녀관계 개선	“큰 아이의 반항이 많이 줄었음”. “엄마를 전보다 많이 따르는 것 같다”. “엄마에 대하여 더 신뢰감을 갖게 된 것 같고...”. “엄마와의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고 가까워진 것 같고...”.
부모교육에의 만족	“엄마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같다”. “자신의 어머니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공부한다는 것을 무척 즐거워했다”. “부모교육이라는 것을 받는 사실을 알고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달라진 엄마의 행동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대인 관계의 개선	“형과 동생의 역할을 서로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학급활동이나 급우들간의 관계가 점차 좋아져 밝고 명랑해졌습니다”.

2) 강사의 평가

부모교육을 진행했던 강사들은 한국청소년 상담원(1993, 1997)에서 발행한 강사용 지침서를 바탕으로 집단 운영의 원칙을 지키면서 참가자 각자의 경험과 사례를 풍부하게 활용하고자 하였다. 간혹 몇몇 사람의 발언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그 내용이 논의의 핵심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참가자 개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는 것이 지속적인 참여와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때 시간 어머니들의 발표와 토론을 적극 유도하고 권장하였다.

프로그램의 초반에는 발표자와 토론의 범위가 한정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회기가 거듭될수록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례를 발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제

시하는 변화를 보였다.

각 회기 중에 또는 가외의 시간과 장소에서 만난 많은 어머니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본 교육으로 인해 자녀 지도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음을 강사에게 전해 왔고,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는 이들의 자녀를 지도하는 담임 선생님이나 윤리주임 선생님, 교감·교장 선생님에게까지 전달되어 그 내용이 강사의 귀에 다시 들려오기도 하였다.

한편 마지막 회기에는 부모교육을 모두 마친 많은 어머니들이 바람직한 자녀지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문제예방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후속모임의 결성을 희망하였으며, 강사도 향후 특강이나 상담에 적극 임하기로 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1) 어머니의 변화

먼저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서는 교육 집단 어머니의 역할 만족도가 비교집단 어머니의 역할 만족도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부모 역할 만족도의 일부 하위 영역에서도 역시 교육 집단의 만족도가 비교집단의 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역할 만족도가 부모역할 준비도와 관련이 있다고 한 선행연구(원정선, 1990)와 맥을 같이 하나, PET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본 연구(연미희, 1992; 1994) 결과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달리 하는 외국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 보다 국내에서 개발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이 우리 나라 어머니들에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가 하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부모역할 만족도의 하위차원별로 부모 교육의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배우자의 지지나 자녀의 지지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두 영역이 부모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나 결혼만족도가 부모역할 만족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Rogers & White, 1998), 이 프로그램이 양육의 일차 책임자인 어머니들의 역할만족도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자녀를 부모교육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배우자의 지지가 어머니의 역량감(신숙재·정문자, 1998)과 부모역할 만족도(양연숙, 1997)

를 높이고, 양육 곤란도(이은혜·이미리, 1996)와 스트레스(전춘애·박성연, 1998)를 낮출 뿐 아니라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Simons et al., 1993)에서도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된다.

교육집단만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역할만족도를 이들의 배경 변인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어머니의 부모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만족도 전체와 몇몇 하위 영역에서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의 어머니들이 고졸의 어머니나 대졸이상의 어머니들 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나타냈는데, 이 분야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이 특정 학력 집단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들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상황이동 욕구가 크고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반면 부모교육의 기회를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계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역할만족도 전체와 몇몇 하위 영역에서 딸의 어머니들이 아들의 어머니들 보다 유의하게 높은 역할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는 자녀의 기질이 양순할수록 부모들의 역할만족도가 높고(현은강, 1994), 딸을 둔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낮다는 연구(신숙재·정문자, 1998)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이는 부모로서의 자신감이나 만족감이 낮아 부모교육을 더욱 필요

로 할 수 있는 남아의 어머니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부모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부모역할 만족도 전체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요컨대 본 연구를 통해서서는 이전에 참여한 부모교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의 누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교육 경험의 유무 보다 교육의 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부모교육 경험이 부모의 역할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은 성급한 것일 수 있다.

어머니의 변화에 관한 또 하나의 관심 분야로 두 집단의 의사소통 기술을 비교해 본 결과, 교육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기술을 나타냈으며, 교육집단의 의사소통 기술은 어머니의 학력과 부모교육 경험, 자녀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부모들이 부모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자 하고,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술을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의사소통과 관련된 효과가 부모교육의 주된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이 어머니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PT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한 결과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응답에 기초하여 의사소통의 효과를 밝혀냄으로써 부모교육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증명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육집단의 자녀들이 평가한 어머니의 의사소통 능력이 어머니의 학력과 부모교육 경험 유무, 자녀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이 프로그램이 특정 계층에 특별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이기보다는 다양한 대상에게 보편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2) 자녀의 변화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의 하나로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교육집단과 비교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가정적 자아에서는 교육집단의 자녀가 비교집단의 자녀보다 유의하게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집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어머니의 학력, 부모교육 경험 유무, 자녀의 성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관련 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비록 자아존중감 전반에 걸쳐 유의한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가정적 자아와 같은 자아존중감의 일부 영역에서 유의한 효과를 가져온 것은 이 프로그램이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함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자아존중감은 단시간 내에 쉽게 변화되기 어려우므로 7주라는 기간을 통해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 시도가 무리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관한 추후연구나 종단연구가 요청된다.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비교에서도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해서는 부모교육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사회적 능력의 하위 영역 중 사회적·주장적 대응에서는 교육집단이 비

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다른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이 사회성 발달의 촉진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아니기에 이러한 효과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교육집단 자녀들의 사회적 능력은 어머니의 부모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정서적 특성이 강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역할만족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달리 행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대인간의 갈등해결 차원에서는 새로 접한 교육 경험이 자녀 지도에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는가 하는 조심스런 추측을 해 볼 수 있지만, 아직은 단정적인 해석을 내리기 어렵고, 후속 연구를 통해 관련 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결론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3) 부모교육 참가자들의 평가

부모교육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 프로그램이 자녀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다른 이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할 의사가 있었으며, 후속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뜻을 나타냈다. 또한 교재, 일정, 장소, 규모, 운영안, 진행자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앞으로 본 연구의 교육 모델을 잘 활용하면, 부모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부모교육을 받고 난 후의 소감을 살펴보면, 자녀를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과, 뭔가를 새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것, 그리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이 좋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어머니들의 소감 가운데 학습 경험 자체를 만족스러워 하는 것과 같이 부모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소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머니들의 반응을 놓고 볼 때 앞으로는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어머니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후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통제하게 되었으며, 부모역할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자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으며, 전보다 향상된 의사소통 기술을 갖게 되었으며, 자기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녀의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향상되었으며, 부모자녀관계가 개선되었고, 어머니가 교육받는 것을 좋아하며, 다른 대인관계에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어머니들의 평가에는, 본 연구에서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통해 양적인 접근으로 그 효과를 검증해 본 변인들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부모교육을 담당한 강사들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이 자녀지도에 도움이 되었음을 강사에게 이야기한 것이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외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된 것, 그리고 부모교육을 마친 후 많은 어머니들이 후속모임을 희망한 것 등이 그와 같은 평가의 근거가 되었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 본 연구결과와 그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은 (1)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2)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부분적인 효과를 발휘하며, (3)프로그램 참가자들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부모교육의 효과를 다른 기존의 연구들과 여러 면에서 차별화 된다. 선행 연구들이 주로 영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양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어머니들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치중했다면, 본 연구는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양적인 분석 뿐 아니라 참가자의 자기보고 내용에 관한 부가적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처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EPT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 효과적이라는 것과, 본 연구에 적용한 교육모델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프로그램을 널리 홍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서로 다른 방법적 접근에 기초한 운영모델과의 비교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변화를 포함할 수 있도록 효과와 관련된 변인을 보다 많이 탐색하고,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과의 비교 연구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보다 다양한 부모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고 그에 따른 효과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육 대상(어머니/아버지/예비부모 등), 자녀의 연령(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등), 교육 일정(장기/단기, 연속/불연속 등), 집단 형태(소집단/대집단, 동질집단/이질집단 등), 운영 방식(강의식/토론식 등)에 따른 부모교육의 효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부모교육의 실행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다 다각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부모교육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단기간 내의 효과를 검증하는 양적인 접근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참가자의 자녀나 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에 의한 평가나이들에게 나타나는 효과를 관찰, 면접, 자기보고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부모교육의 장기적인 효과를 검토하는 종단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광웅·최경순(1997). 가정교육의 지침. 새시대의 가정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pp.241-253.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지신(199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1, 85-107.
- 김혜숙(1997).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부모교육학*(pp.337-345). 한국부모교육학회편. 서울: 교육과학사.
- 신숙재·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양연숙(1995).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및 가족특성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연미희(1992). 유치원생 어머니에 대한 PET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30(1), 349-359.
- 연미희(1994). 한국부모에 대한 PET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성 평가.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원정선(1990). 부모됨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가효(1997). 유·아동기의 가정교육. 새시대의 가정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pp.273-293).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은혜·이미리(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곤란도 지각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61-78.
- 전춘애·박성연(1998).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95-105.
- 최보가·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3.
- 한국청소년상담원(1993).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 현은강(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은희(1998). 부모가 바라는 부모교육의 추진 방향과 방안. *자녀로부터 배우며 가르치는 부모*. 한국청소년상담원.
- 황옥경(1997). 아동의 대인지각과 문제해결행동 및 또래지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arnes, H. L.,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Minnesota.
- Furstenberg, F. F., Jr., & Harris, K. M.(1992). The disappearing American father?: Divorce and the Waning significance of biological parenthood. In S. J. South & S. E. Tolnary(Eds.),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sociological and demographic perspectives*(pp.197-223). Boulder, CO: Westview Press.
- Guidubaldi, J., & Cleminshaw, H.(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Guidubaldi-Cleminshaw parent satisfaction scale. In M. J. Fine (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pp.3-2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Hamner, T. J., & Turner, P. H.(1996).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3rd ed.).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 Huston, A. E.(1990).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7th ed.). NY: Harper & Row.
- Rogers, S. J., & White, L. K.(1998). Satisfaction with parenting: The role of marital happiness, family structure, and parents'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293-308.